(4) 정초의 놀이

① 널뛰기

정초에 부녀자들이 넓이 한 자, 길이 7~8자 남짓되는 두꺼운 판자의 중앙에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들을 고이고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힘껏 내리 디디고 뛰어 솟고 하는 놀이다.

② 윷놀이

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어떤 장소에서도 노는 놀이다.

③ 연날리기

세배 돌기를 마친 후부터 연날리기를 한다. 대보름이 되면 액연을 띄운다. 연줄 끊기를 할 때는 연줄에 부레풀을 먹이고 사금파리나 유리 조각들을 부숴서 바른다. 가오리연, 방패연 등이 있다.

④ 승경도(승정도, 종경도)

주로 양반 가문의 젊은이들과 부녀자들이 정초에 즐겨 하던 실내 놀이다. 종이에 관직이나 학업의 등급을 차례로 기입하고, 박달나무로 5각이 지도록 깎은 알을 던져서 나온 글자에 따라 관등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.

⑤ 돈치기

흙 바닥 편편한 곳에 지름 30㎝ 정도의 둥근 구멍을 파고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기 동전 하나씩을 구멍에 던진다. 구멍에 가까울수록 잘 던진 것으로 차례가 정해진다. 첫째가 전원의 동전을 모아서 앞에서 구멍을 향해 동전 전부를 던진다. 구멍에 들어간 것을 다 가지고, 나머지는 하나씩 손바닥만한 둥글납작한 돌로 맞혀 가진다. 구멍 못 미쳐 10여㎝ 거리에 가로로 금을 긋고 동전 여러 개를 구멍에 넣으려고 던지다가 금 앞에 떨어진 동전은 돌로 맞혀 따 먹을 수 없다.

⑥ 비석치기

5m 정도의 거리에 돌을 세워놓고 가로 15㎝ , 세로 10㎝ 정도의 편편하고 네모진 목자돌을 가지고 맞히는 놀이이다. 순서는 다음과 같다.

・건너 맞추기 : 오른손에 목자를 들고 세워놓은 돌을 맞혀 넘어지게 한다.
  ・한발걸이 :목자를 앙감질(깨금발)로 한 발 뛰어 밟을 수 있는 거리에 던져놓고 왼발로 깨끔발을 뛰어 그 목자를 밟은 다음 허리를 굽혀 오른손으로 돌을 주워 세워놓은 돌을 맞혀 넘어지게 한다.
  ・두발걸이 : 목자를 깨금발로 두 발 뛰어 밟을 수 있는 거리에 던져놓고 깨금발로 두 발 뛰어 그 목자를 밟은 다음 허리를 굽혀 돌을 주워 세워놓은 돌을 맞혀서 넘어지게 한다.
・세발걸이 : 깨금발을 세 발 뛰어 두발걸이와 같이한다.
  ・재기 : 목자를 던져놓고 깨금발로 세 번 뛴 다음, 네번째 뛰면서 돌로 차돌을 맞혀 넘어

지게 한다.

- 왼발 오른발 : 공격자가 상대방에게 '왼발? 오른발?' 하고 물으면 세워놓은 목자의 임자가 '왼발' 하고 대답하면 목자를 왼발의 발등 위에 얹어놓고 오른발 깨금발로 세 번 뛴 다음 발등의 돌을 날려 세워놓은 돌을 맞힌다.
- 토끼 : 목자를 두 발목 사이에 끼고 토끼처럼 여덟 발을 뛴 다음 아홉번째 뛰면서 돌을 날려 세워놓은 돌을 넘어지게 한다.
- 물팍 : 두 무릎 사이에 목자를 끼고 토끼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세워놓은 돌을 맞혀 넘어지게 한다.
- 딸낳고 아들낳기 : 사타구니에 목자를 끼고 토끼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, 던진 목자가 세워놓은 목자를 넘어뜨려 두 목자가 서로 떨어졌을 때는 '아들'이고, 붙어 있을 때는 '딸'이라 한다. 만약 '딸'이 있을 경우에는 실격이다.

- 고드름 : 오른발을 들고 가랑이 밑으로 돌을 던져 넘어지게 한다.
  - 깽깽빠 : 목자를 적당한 거리에 던져놓고 눈을 감고 모둠발로 두 발을 뛰고, 세번째는 두 발을 벌려 뛴 다음 목자를 찾아 손에 들고 세워놓은 돌을 넘어뜨린다.
  - 깽빠 : 목자를 던져놓고 눈을 감은 채 모둠발로 한 발 뛰고 두번째는 발을 벌려 편 다음 허리를  굽혀 돌을 찾아 들고서 세워놓은 돌을 겨냥하여 맞혀 넘어지게 한다.

그밖에 짱치기, 씨름, 들돌놀이, 디딜방아 액막이, 줄다리기 등이 있다.